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9)반 (10)번 이틀 (강하은)		자와상(1939)_윤동주

1.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알아 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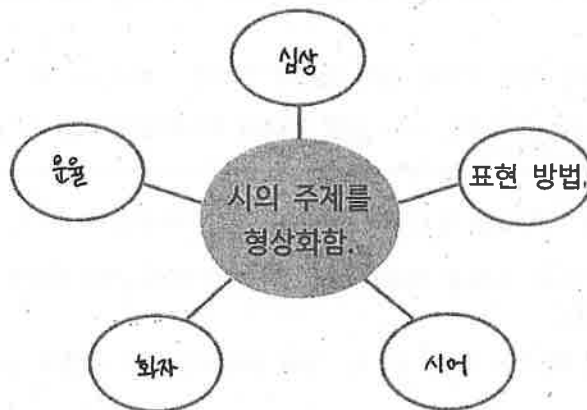
### 1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p.13)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 자신의 ( 방법 ), ( 생각 ), ( 감정 ) 등을 문학 작품에 담아냄.</li> <li>• 이것은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 가치관 ), ( 세계관 ), ( 문제의식 ) 등과 관련된다.</li> </ul>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각 갈래에 알맞은 방법이나 장치 선택함.</li> </ul>

시, 소설, 수필, 극

### 2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

- 형상화: '형체/형상으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체/형상'으로 표현한 것



## 시의 구성 요소

음악적 요소	<p>★ 시를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말의 가락 = ( 운율 )</p> <p>① 음악성을 드러내는 방법 : 반복, 음성상징어 사용 (의성어, 의태어)</p> <p>② 종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형률: 겉으로 드러나는 운율. 음위율, 음수율, 음보율</li> <li>- ( 내재율 ): 의미와 결합 되어 내밀하게 흐르는 정서적, 개성적 운율. 주로 현대시의 운율이며, 의미 구조, 정서의 흐름, 연과 행 구분 등을 통해 형성됨.</li> </ul>
회화적 요소	<p>★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인상 = ( 심상 )</p> <p>① 종류: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p> <p>②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함.</li> <li>- 정서나 분위기를 환기함.</li> <li>- 시어의 의미와 느낌을 보다 함축성 있게 나타냄.</li> </ul> <p>③ ( 공감각적 ) 심상: 하나의 감각적 대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 표현하는 것. (각각의 전이)</p> <p>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 ex) 향기처럼 느껴지는 푸른 울타리 복합적 심상: 많은 나뭇잎</p>
의미적 요소	<p>★ 시에 표현된 작가의 정서와 사상 = ( 주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어의 함축성 : 말의 구조와 문맥 속에서 형성되는 비유적, 상징적, 암시적 의미</li> </ul>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틀 (김하연)		자화상(1939)_윤동주

### ☞ 시의 표현 기법( 수사 법)

비유	<p>★ 본래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원관념)을 다른 대상(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 기법.</p> <p>→ 두 대상의 ( 유사성 )을 기반으로 성립됨.</p> <p>→ 직유, 은유, 의인, 활유, 대유, 풍유</p>
상징	<p>★ 추상적 사물이나 관념, 사상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방법.</p> <p>→ ( 원관념 )이 드러나지 않으며, 다의적임.</p> <p>→ 관습적(전통적) 상징, 개인적(창조적) 상징, 원형적 상징</p>
( 반어 )	<p>★ 표현하려는 내용·의도와 반대로 나타냄으로써 문장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강화하는 표현.</p> <p>예)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진달래꽃', 김소월</p>
( 역설 )	<p>★ 모순된 진술을 통해 오히려 어떤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p> <p>예) 아아, 님은 갓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님의 침묵', 한용운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p>

- ☞ 화자 • 시에서 말하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 ( 화자 )', ' ( 시적 화자 )', ' ( 서정적 자아 )'라고도 한다.
-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 허구 )적 대리인
  - 화자 ≠ 시인 \* 시인 ≠ 화자
  - ( 표현 )에 드러난 화자 - ' ( 나 )', ' ( 우리 ) (나+너)'라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

### 3 시적 화자의 태도와 정서, 어조

요소	개념	종류
태도	<p>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 나타내는 <u>심리적 자세</u> 및 <u>대응 방식</u>.</p> <p>→ 주로 ( 어조 )를 통해 드러남.</p>	<p>예찬적, 성찰적, 달관적, 의지적, 비판적, 긍정적, 낙관적, 수용적, 도피적, 자연친화적, 체념적, 회의적 태도 등</p>
정서	<p>시적 상황이나 시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u>감정과 생각</u>.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심리적 상태를 말함.</p>	<p>▶ 희망, 환희, 소망, 그리움, 동경, 여유, 풍류 등</p> <p>▶ 고통, 죽음, 절망, 한, 애상, 허무, 고독, 우수, 방황, 체념, 분노, 개탄 등</p>
어조	<p>작품 속에 드러나는 화자의 <u>개성적인 목소리</u>.</p> <p>→ ① 시의 분위기를 조성함. ② 시의 주제를 형상화함. ③ 화자의 정서, 감정, 태도를 드러냄.</p>	<p>친화적, 냉소적, 절망적, 풍자적, 해학적, 비판적, 의지적, 낙천적, 염세적, 영탄적 어조 등</p>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쁨 (김하연)		자화상(1939)_윤동주

#### □ 학습 목표

1. '자화상'의 구성 요소들과 작품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2. 주체적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능동적으로 문학을 향유한다.
3. 문학 작품을 해석·평가한 내용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면서 소통한다.

#### 맥락 읽기

1. 제목 '자화상(自畫像)'의 뜻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2. 시적 화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교과서 p.16 국어 힘 키우기1)  
외한 원화를 찾아 우물 속 풍경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 → 시적 상황
3. '한 사나이'는 누구이며,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나이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4. '우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아성찰의 매개체
5. 3연에서 5연까지 화자의 심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교과서 p.16 국어 힘 키우기2)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 → 갈등 해소

이러한 심리 변화는 내적 갈등에서 오는 것으로 성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5. 화자는 왜 사나이가 미워졌을까요? 또, 왜 그리워졌을까요?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감상해 보세요.

미움: 우물에 비친 현재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물이 마음에 안 드는 것만지 나타내지 않음)

그리움: 현재 모습과는 다른 화자가 전에 품었던 자신의 순수한 마음, 내면에 대한 그리움으로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부정적 대상을 괴러하지는 않음. 괴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이상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 지선과 화해하려 한다는 것을 나타냄)

6. 우물 속 풍경과 시 속에 드러난 현실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7. 마지막 연(6연)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추억'이라는 시어가 주는 이미지를 생각하며 감상해 보세요~

성찰을 통해 현재의 내가 바라는 모습인, 과거 순수했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

(분열하는 자아의 화해, 내적 갈등의 해소, 자기 형상의 극복)

2연의 우물 풍경과 5연의 자신을 내성했는데, 6연에서는 우물 풍경과 사나이를 함께 표현함

8. 동일한 시구가 반복되는 부분을 찾고, 이러한 표현이 시 감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① 3연에서 '나보다' 반복

② 시어 '사나이' 반복

③ 2연과 6연에서 반복

• 효과: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구성상 안정감, 균형감 부여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틀 (강하준)		자화상(1939)_윤동주

## 작품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고백적
어조	자기 성찰의 차분한 어조		
제재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		
주제	자아 성찰과 자기에 대한 연민과 미움, 화해하는 마음 (자아성찰과 양호한 현상 속 자성에 대한 애증)		
표현상 특징	① 모든 문장을 ‘-버니다’로 끝내는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여 산문적으로 진술함. (※ 국어 종결형: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② 구체적 행동을 통해 화자의 심리변화를 형상화함. (돌아가고, 생각하고, 도로 가고, 다시 돌아가고, 생각하고) ③ 시적 허용: 파아란 ④ 공감각적 심상: 파아란 비강이 붉고 (후각의 시각화) ⑤ 열거: 구름속 풍경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청치리 비강이 붉고 가솔이 깃들여다) ⑥ 반복: ‘버니다’, ‘사나이가 깃들니다’, ‘돌아갑니다’, ‘달이 밝고 ~~ 비강이 붉고’		

① 전상행: 6명

## 목표 학습

### 작가 소개

\* 별을 노래하는 시인 윤동주

윤동주(尹東柱, 1917~1945) : 시인. 북한도 출생. 일본 도시샤(東志社) 대학 영문과 재학 중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이듬해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1941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편의 시를 묶은 자전 시집을 발간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자필로 3부를 남긴 것이 그의 사후 빛을 보게 되어, 1948년 유고 30편을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간행되었다. 주로 1938~1941년에 쓰인 그의 시에는 불안과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로 현실을 돌파하려는 강인한 정신이 담겨있다. 자아를 고요히 응시하고 사색하는 내용의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표현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서시’, ‘별 헤는 밤’, ‘또 다른 고향’, ‘쉽게 씌어진 시’, ‘참회록’ 등이 있다.

### 1. 작가의 삶과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해 ‘자화상’을 감상해 봅시다.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을 다시 감상해 보세요~ 의미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의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 일제강점기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한다.

### 2. 시 경험 쓰기

: 고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시의 화자와 비슷한 정서(심리) 변화를 경험한 일이 있다면 짧은 글로 써 봅시다.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봄 (김하연)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2001)_나희덕

1.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읽어 읽기(2)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화자는?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는 사람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거리감을 두는 지나침 → 오래 곁에서 살게 됨

(시간경과에 따른 인식 변화) (연립·오해) (이해, 공감)

나희덕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다들, 포용적 마음)

→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 (오해·연립·이해)

나(화자)와 복숭아나무(대상) 사이의 조화나 독백

## 작가 소개

나희덕(1966~): 자연과 인간, 삶과 시를 주요 주제로 다루며 그 속에서 희망과 갈망, 미더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시와 산문집으로 한국 현대 시문학의 중요한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 삶과 시를 통해 미묘하면서도 깊은 감정과 갈망을 전달하며, 독특한 시적 표현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배추의 마음',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 등의 시와 「반 통의 물」 등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6)반 (10)번 이름 (강하은)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2001)_나희덕

매락 읽기

1.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해 봅시다.

시어	함축적인 의미 (표현상 특징)
여러 겹의 마음	너무나 복잡한 내면,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복숭아나무	타인을 바깥/의인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대상에 대한 상상전, 평면
흰꽃과 분홍꽃	대상의 모습, 화자가 대상에게 가지고 있었던 평면
수천의 빛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생한 모습, 대상의 본질
복숭아나무 그늘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공간 (↔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2. 이 시에서 말하는 대상과 시적 화자의 행동을 정리해 보고 시적 화자의 태도를 알아봅시다.

대상의 모습	시적 화자의 행동	시적 화자의 행동의 의미, 태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 복숭아나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리감을 둠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떨려서 떨려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소통을 하지 못했고 지나침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떨어서 알았습니다 / 눈에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화자가 대상의 기색을 인식함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의 공간; 진정한 이해를 하는데 오래 걸림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늘 소리를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 화자의 인식 변화 공간 (도치법: 여운 형성)

3.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시적 화자는 어떤 어조로 말하고 있나요?

부드럽고 웅세한 어조: 경어체(습니다) / 담담한 어조 / 객관적이고 생략적인 어조

(2) 시적 화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거리감을 둠 지나침 (선입견, 이해) → 오래 만에 알게 됨 (이해의 공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식 변화

4. 이 시의 주제에 대해 말해 봅시다.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다 교감하기를 소망함.

□ 위 질문 외 이 시에 관해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써 보세요(답은 안 써도 됩니다).

Q. 왜 굳이 복숭아나무로 표현했을까?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온)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룸 (김하영)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2001)_나희덕

작품 정리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적, 성찰적, 관념적, 인식론적 등
화자	복숭아나무(타인)를 바라보는 나		
정서	깨달음, 성찰, 반성		
주제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타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따뜻한 관심과 이해의 필요성		
표현상 특징	① ( <u>그</u> )체 종결로 부드럽고 섬세한 어조 형성 ② 지시어 '그'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음. ③ ( <u>도시법</u> )을 사용하여 ( <u>여인</u> )을 형성함. ④ 일상적 소재를 통해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함. ⑤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로 보여줌.		
	① 1~( 6 )행 :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소통의 ( <u>부재</u> ) ② ( 7 )~( 12 )행 : 대상에 대한 진정한 ( <u>이해</u> ) ③ ( 13 )~16행 : 나와 대상 사이의 조화와 ( <u>통합</u> )		

더 알기...

 **시상 전개 방식**      시상(詩想) ~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상념.

	종류	의미
①	<u>시간</u> 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하루 중의 시간, 계절, 시대, 또는 과거-현재-미래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순행적 구성
②	<u>시인의 이동, 공간</u> 에 따른 전개 방식	아래→위, 먼 곳→가까운 곳, 장소의 이동에 따라 공간이나 장면, 또는 표현 대상을 이동하거나 시선을 변화시켜 표현함.
③	<u>선경후정</u> (先景後情)	앞부분에서는 ( <u>풍경, 정지</u> )을 주로 묘사하고 뒷부분에서 화자의 ( <u>정서</u> )를 표출하는 방식.
④	<u>기승전결</u> (起承轉結)	'시상 <sup>기</sup> 제시→시상 <sup>승</sup> 전개→시상 <sup>전</sup> 전환→시상 <sup>결</sup> 마무리'의 순서로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
⑤	<u>수미상관</u> (=수미상응)	시의 처음과 끝을 일치시키거나 유사한 시구로 구성하는 방법. 처음과 끝이 균형을 이루어 구조적 안정감과 통일감을 주며, 의미 강조와 음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
⑥	<u>점층</u> 적 구성	시상이 전개될수록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점점 ( <u>고조</u> )되는 시상 전개 방식.
⑦	<u>대조</u> 적 심상의 제시	이미지나 의미를 대조적으로 설명하여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
⑧	<u>연상</u> 에 의한 시상 전개	하나의 시어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주는 이미지와 관련된 다른 관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방식.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온)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름 (김하은)		흰 그림자(1942)_윤동주

1.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2. 시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읽어 읽기

### 흰 그림자

생략적 의미: 참다운 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자의 불신인  
분열된 자아

윤동주

1

해설적  
자아성찰의 시간

황혼이 짙어지는 길모퉁이에서 <sup>공간</sup> <sup>→ 자전 화자의 모습</sup>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sup>(각운: 운운 형성)</sup>  
<sup>시각의 청각화(공감각)</sup>

2

발자취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나는 증명했던가요. <sup>증명하지 못했다고 반성 (성찰)</sup>  
<sup>설의법</sup>

3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sup>(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자서)</sup>

내적 갈등  
(관외, 반인)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를 <sup>→ 분열된 자아</sup>

하나, 둘 제고장으로 돌려보내면  
거리 모퉁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sup>분열된 자아인 흰 그림자를 떠날법  
(내적 갈등 해소)</sup>

4

흰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sup>→ 떠날법 분열된 자아에 대한 이별</sup>  
<sup>애절한 정으로 그렇게</sup>

5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sup>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 흰 그림자들</sup>

허전히 뒷골목을 돌아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오면 <sup>→ 내적 성찰, 반성의 공간 / 새로운 삶의 자세로 생각하는 자성만의 공간</sup>

6

신념이 깊은 의젓한 양처럼 <sup>순수, 희생양 이미지  
(적위법)</sup>  
하루 종일 시름없이 풀포기나 뜯자. <sup>차별(차이) (강한 의지의 표현)</sup>  
<sup>적위법(강조)</sup> <sup>→ 내게 밟혀도 믿지 못할 대립했다 (의지)</sup>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름 (김하운)		흰 그림자(1942)_윤동주

## 맥락 읽기

1. 이 시에서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나요?

'나' → 표면에 드러나 있음

2. 시구 '황혼이 짙어지는' 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아 생활의 시간

3. '하루 종일 시들은 귀' 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정적(안락) 상황 속에서 자아 화자의 모습

4. '충명했던가요' 는 누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건가요?

화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음 → 의문적 의미를 함축하며 자아 화자의 자성을 성찰하고 있음

5.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 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냉정적 자제

6. '오래', '괴로워하던 수많은 나' 는 어떤 '나' 를 의미하나요?

오랫동안 내적 갈등과 번민을 이어온 화자의 분열된 자아

7. 3연의 시적 상황은 어떠한가요?

분열된 자아간 흰 그림자를 떠나보냄 → 내적 갈등 해소

8. '흰 그림자' 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화자의 본심. 화자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

9. 4연의 '연연히' 의 뜻은 무엇인가요?

해탈할 정도로 고집끼

10. 4연에서 드러나고 있는 화자의 정서는?

떠나보낸 자아에 대한 이별

11. 4연, 5연에서 시적 화자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가?

- 분열된 자아간 흰 그림자를 떠나보내고 있음
- 떠나보낸 분열된 자아에 대한 이별 ('연연히 사랑하던', '헤쳐온 뒷문들을 돌아')

12. '내 방' 은 어떤 의미의 공간인가요?

새로운 삶의 자세를 행하는 자아만의 공간

13. 6연에 쓰인 표현 방법 2가지를 찾고, 이러한 표현이 시 감상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념이 깊은 양처럼'	비유적 표현 (직유)	화자의 삶의 자세를 형상화함. 번민에서 벗어나
'하루종일 시들음이 풀리거나 들기'	청유형 문장	신념으로 자아를 움직이겠다는 강한 의지 드러냄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10)반 (10)번 이름 (김민준)		흰 그림자(1942)_윤동주

###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와 표현상의 특징

시어	함축적 의미 (표현상 특징)
흰 그림자	화자의 분열된 자아(화자의 분신) 공존과 애정의 대상 화자의 내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
→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로써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	
흰색	혼란과 혼동을 의미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공간적)심상 : 시각적 심상 → 청각적 심상(감각의 전이) - 시간의 경과를 감각적으로 형상화 <b>청각의 시각화</b>
나는 증명했던가요	증명하지 않았다. : (의심)
이제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깨달은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달았다
오래 마음 깊은 속에, 괴로워하던	내적 갈등(번민)
소리 없이 사라지는 흰 그림자	내적 갈등 해소
연연히 사랑하던 흰 그림자들	과거의 자아에 대한 사랑과 (비련)
~ 기울이면, ~ 돌려보내면, ~ 돌아오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각운 → (운율) 형성
신념이 깊은 의전한 양처럼	의지, 신념이 강한 존재, 순수한 존재, 희생에 대한 의지
풀포기나 뜯자	(청유형) 문장 → 강한 의지(신념) 드러냄.

### 작품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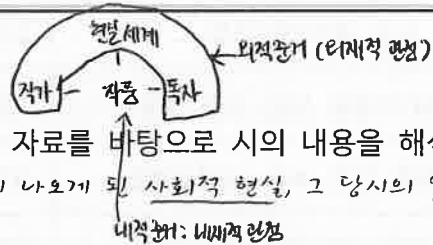
갈래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고백(독백)적, 의지적, 상징적, 성찰적
상황	분열된 자아인 흰 그림자를 떠나보냄.		
정서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내며 미련을 느낌.		
태도	지난날의 자신을 성찰하고, 번민에서 벗어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짐.		
주제	자아 성찰을 통한 고뇌의 극복, 신념을 지키는 삶에 대한 의지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운(라운) 국어 수업	(1) 문학의 숲과 나무
( )반 ( )번 이름 ( )		원 그림자(1942)_윤동주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냄. - 시각, 청각, 공감각적 심상 ② ( <u>현실적</u> ) 표현(의문형 어미)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냄. ③ 비유, 청유형 문장을 활용하여 삶에 대한 의지적 자세 형상화 ④ 일부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 <u>연</u> )을 형성함. ⑤ 각운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함.
구성	1연 : 시대 현실(외부 현실)에 대한 응시 2연 : 자신의 모습에 대한 성찰(반성) 3연 : 자아 성찰을 통해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냄.(오랜 고뇌와 갈등을 해소한 화자) 4~5연 : 분열된 자아에 대한 미련 4연 - 과거의 자아에 대한 미련과 애정 5연 - 내면 정리를 통한 긍정적 자아의 회복 6연 : 신념을 지키는 삶에 대한 의지(실천 의지)

###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시의 내용을 해석해 봅시다.

\* 외적 준거: 작품 외부의 판단 기준이나 근거. 예를 들어 그 작품이 나오게 된 사회적 현실, 그 당시의 역사, 그 작품을 지은 작가의 생애 등

#### [자료]

→ 임제평행기

‘원 그림자’는 암담한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친 화자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상징한다. 이는 공존과 애정의 대상인 동시에 내면에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화자는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냄으로써 갈등을 극복하는데, 이로써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

1. <자료>에서 화자는 암담한 시대 현실에서 고뇌로 지쳤다고 했는데, 시 속의 ‘하루 종일 시들은 귀’, ‘오래’, ‘괴로워하던’ 것을 통해 힘겨운 현실 속에 놓인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 <자료>에서 ‘원 그림자’는 화자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공존과 애정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시 속의 ‘원 그림자들’ ‘연연히 사랑’했었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3. <자료>에서 화자는 자신의 분신인 분열된 자아를 떠나보낸다고 했는데, 이는 시 속의 ‘수많은 나’를 ‘제 고통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4. <자료>에서 화자는 갈등을 극복하고 번민에서 벗어나 묵묵히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는데, 시 속의 ‘신념이 깊은 의전한 양처럼’ ‘시름없이 풀포기’를 ‘뚫’겠다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5. <자료>에서 ‘원 그림자’는 화자의 분열된 자아이며 내면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시 속의 ‘내 모든 것을 돌려보낸 뒤’ ‘허전’함을 느끼며 ‘황혼처럼 물드는 내 방’으로 돌아온 상황은, 화자가 내면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제  $(a+b+c)^2$ ,  $(a+b)^3$ ,  $(a-b)^3$ ,

$(a+b)(a^2-ab+b^2)$ ,  $(a-b)(a^2+ab+b^2)$ 과 같은 다항식의 곱을 위의 곱셈 공식과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전개해 보자.

$$\textcircled{1} (a+b+c)^2 = \{(a+b)+c\}^2$$

$$= (a+b)^2 + c^2 + 2(a+b)c$$

$$= a^2 + 2ab + b^2 + c^2 + 2ac + 2bc$$

$$= a^2 + b^2 + c^2 + 2(ab+bc+ca)$$

$$\textcircled{2} (a+b)^3 = (a+b)(a+b)^2 = (a+b)(a^2+2ab+b^2)$$

$$= a^3 + 2a^2b + ab^2 + a^2b + 2ab^2 + b^3$$

$$= a^3 + b^3 + 3a^2b + 3ab^2$$

$$= a^3 + 3a^2b + 3ab^2 + b^3$$

$$\textcircled{3} (a-b)^3 = (a-b)(a-b)^2 = (a-b)(a^2-2ab+b^2)$$

$$= a^3 - 2a^2b + ab^2 - a^2b + 2ab^2 - b^3$$

$$= a^3 - 3a^2b + 3ab^2 - b^3$$

$$\textcircled{4} (a+b)(a^2-ab+b^2) = a(a^2-ab+b^2) + b(a^2-ab+b^2)$$

$$= a^3 - a^2b + ab^2 + a^2b - ab^2 + b^3$$

$$= a^3 + b^3$$

$$\textcircled{5} (a-b)(a^2+ab+b^2) = a(a^2+ab+b^2) - b(a^2+ab+b^2)$$

$$= a^3 + a^2b + ab^2 - a^2b - ab^2 - b^3$$

$$= a^3 - b^3$$

#### 곱셈 공식

$$\textcircled{1} (a+b+c)^2 = a^2+b^2+c^2+2(ab+bc+ca)$$

$$\textcircled{2} (a+b)^3 = a^3+3a^2b+3ab^2+b^3$$

$$(a-b)^3 = a^3-3a^2b+3ab^2-b^3$$

$$\textcircled{3} (a+b)(a^2-ab+b^2) = a^3+b^3$$

$$(a-b)(a^2+ab+b^2) = a^3-b^3$$

**예제1**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 (3x+2)^3$$

$$= 27x^3 + 54x^2 + 36x + 8$$

$$(2) (2x-y)(4x^2+2xy+y^2)$$

$$= 8x^3 - y^3$$

**문제2**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 (2x-y+2z)^2$$

$$= 4x^2 + y^2 + 4z^2 - 4xy + 8xz - 4yz$$

$$(2) (x-3y)^3$$

$$= x^3 - 9x^2y + 27xy^2 - 27y^3$$

$$(3) (x+2)(x^2-2x+4)$$

$$= x^3 + 8$$

$$(4) (x-5y)(x^2+5xy+25y^2)$$

$$= x^3 - 125y^3$$

■ 곱셈 공식을 변형하면 여러 가지 식의 값을 간단히 구할 수 있다.

#### 곱셈 공식 변형식

$$\textcircled{1} a^2+b^2+c^2 = (a+b+c)^2 - 2(ab+bc+ca)$$

$$\textcircled{2} a^3+b^3 = (a+b)^3 - 3ab(a+b)$$

$$a^3-b^3 = (a-b)^3 + 3ab(a-b)$$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운) 국어 수업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
(10)반 (10)번 이름 (김하은)		(1) 올바른 발음과 표기-음운의 변동

- ( 입찰소리 ) :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ㄷ)
- ( 잇닿소리 ) : 혀끝이 윗잇몸에 닿아서 나는 소리 (ㄷ)
- ( 섹입천장소리 ) : 혀바닥과 섹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 ( 여린입천장소리 ) : 혀바닥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 ( 목청소리 ) :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ㄷ)
- ( 파열음 ) :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 마찰음 ) :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혀서 공기가 그 사이를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는 소리
- ( 파찰음 ) :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켜 내는 소리로,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소리
- ( 비음 ) :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ㄷ)
- ( 율음 ) : 혀끝을 윗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ㄷ)
- ( 울림소리 ) : 발음할 때 목청이 떨려 울리면서 나는 소리 ㄷ, ㄴ, ㄹ, ㄷ
- ( 안울림소리 ) :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
- ( 예사소리 ) : 숨 쉴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평범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소리(평음)
- ( 뽕소리 ) : 긴장된 상태에서 나오는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소리(경음)
- ( 거센소리 ) : 숨이 거세게 나오는, 크고 거친 느낌의 소리(격음)

#### 4. 국어의 모음 체계(현대국어의 모음은 21개)

모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발음 방법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 (1) 단모음 체계(10개)

( 단모음 ) : 발음하는 도중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

혀의 위치 입술 모양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ㅜ	ㅡ	ㅗ
중모음	ㅓ	ㅛ	ㅕ	ㅜ
저모음	ㅗ		ㅓ	

##### (2) 이중 모음(11개)

( 이중모음 ) :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모음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짐.

- 'ㅣ'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ㅏ[ja], ㅑ[jə], ㅓ[jo], ㅕ[ju], ㅗ[je], ㅛ[je]
- 'ㅓ/ㅕ'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ㅗ[wa], ㅛ[we], ㅕ[wə], ㅗ[we]
- 'ㅡ'에서 시작하여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 ㅓ[ji]

##### (3) 반모음(168쪽 참고)

- 반모음은 온전한 모음이 아니므로 반달표(^)를 하여 표시함.
- 단모음에 붙어 상대적으로 짧게 발음되는 소리
- 반모음 성질

( ㅓ )과 유사한 점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 받쳐주는 )다.
( ㅕ )과 유사한 점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 ㅓ )에 붙어야 발음될 수 있다.

- 음운의 개념과 음운 체계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음운 변동에 내재된 원리와 규칙을 탐구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한다.

## 음운

### 1. 음운의 개념

: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사람들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소리.

\* (음성):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는 소리로 사람이 실제로 말하는 물리적인 소리.

\* (음절):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로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짐.

예) 공=ㄱ(초성) + ㄴ(중성) + ㅇ(종성)

▷초성(첫소리): 음절의 처음에 오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ㄴ, ㅍ, ㅅ, ㅈ, ㅊ, ㅋ, ㆁ : 18 개)

▷중성(가운데소리): 음절의 가운데에 오는 모음, 모음은 홀로 음절 구성 가능

예) 아 -> 초성에 오는 'ㅇ'은 소릿값이 없음(음운이 아님). 음운의 개수 1개

▷종성(끝소리): 음절의 마지막에 오는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 개만 발음됨.->음절의 끝소리 규칙 참고)

\* 형태소: 뜻을 가진 (말)의 최소 단위.

### 2. 음운의 종류

(1) 음소(분절 음운):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음운. (자음), (모음), (반모음)

예) 비, 피: 'ㅂ'과 'ㅍ'. 서리, 소리: 'ㄷ'과 'ㄴ'. 북, 붐: 'ㄱ'과 'ㅇ'.

(2) 운소(비분절 음운): 단독으로 실현되지 않고 분절 음운에 얹혀서 실현되는 소리.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데 관여하는, 소리의 높낮이(억양), 길이(음장), 세기(강세) 등 음소 이외의 운율적 특징.

### 3. 국어의 자음 체계(현대국어의 자음은 19개)

자음: 조음 기관에 의해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

\*조음 위치: 공기의 흐름이 방해(장애)를 받는 위치 \*조음 방법: 공기의 흐름이 방해(장애)를 받는 방법

조음방법	조음위치	입술소리 (순음)	잇몸소리 (치조음)	센입천장소리 (경구개음)	여린입천장소리 (연구개음)	목청소리 (후음)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ㄴ	ㄷ		ㄱ
		된소리	ㄴ	ㄷ		ㄱ
		거센소리	ㄴ	ㄷ		ㄱ
	파찰음	예사소리			ㄱ	
		된소리			ㄱ	
		거센소리			ㄱ	
	마찰음	예사소리		ㄴ		ㄴ
		된소리		ㄴ		ㄴ
	비음(콧소리)	ㅇ	ㄴ		ㅇ	
울림소리	유음(흐름소리)		ㄴ			

2024학년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즐거움(라운) 국어 수업	4. 교양 있고 사려 깊은 언어 생활
(10)반 (10)번 이름 (김하은)		(1)올바른 발음과 표기-음운의 변동

### 〈형태소〉

- ① 개념: 뜻을 가진 ( 말 )의 최소단위. 더 쪼개면 의미가 없어지는 문법 단위.  
 ② 종류 '꽃이 예쁘다. 꽃사과를 먹다.'라는 문장을 형태소 분석했을 때 예시

기준	명칭	의미	예) 꽃이 예쁘다. / 꽃사과를 먹다.
자립성 유무	( 자립 ) 형태소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꽃, 사과
	( 의존 ) 형태소	혼자서는 쓰일 수 없고 항상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 (어간, 어미(어말, 선어말), 접사, 조사)	이, 예쁘-, -다, 꽃-, 를, 먹-, -다
의미의 허실	( 실질 ) 형태소 =어휘 형태소	대상, 동작, 상태 등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sup>동사형태소</sup> <u>어간</u> )	꽃, 예쁘-, 사과, 먹-
	( 형식 ) 형태소 =문법 형태소	실질 형태소에 붙여 문법적인 의미를 표시하는 형태소 (조사, 어미(어말, 선어말), 접사)	이, -다, 꽃, 를, -다

1. '밟히다'보다 '짓밟히다'는 '힘주어 꺾다'이란 의미가 더해진다. '짓-'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밟다'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밟히다'는 누군가의 행동을 내가 입는 것이다. '-히-'의 유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밟히었다'에서 '-었-'은 과거의 일이라는 의미를 더해준다. '다'는 문장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밟-'을 '먹-'으로 바꾸면 또 의미가 달라진다. '짓밟히었다'를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면 '짓- + 밟- + -히- + -었- + -다'로 된다. 이처럼 더 쪼개면 뜻을 잃어버리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 형태소 )라고 한다. '짓밟히었다'는 ( 5 )개의 형태소로 된 단어이다.
2. '밟-'처럼 구체적이며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 실질 형태소 )라고 하고, '짓-', '-히-', '-었-', '-다'처럼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 형식 형태소 )라고 한다.
3. '책상, 너, 하나, 새(new), 무척, 아(oh)'처럼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 자립 형태소 )라고 하고, '책상이, 밟는, 짓밟아'에서 '이, 밟-, -는, 짓-'처럼 조사, 어간, 어미, 접사 등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를 ( 의존 형태소 )라고 한다.

① 자립성 유무에 따라

- ㉠ 자립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 의존형태소 : 조사, 용언의 어간,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접사

② 어휘적 의미의 유무에 따라

- ㉠ 실질형태소 :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 형식형태소 : 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 접사

### 〈어간과 어미〉

- ① ( 어간 ) : 용언이 활용할 때,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며 변하지 않는 부분  
 ② ( 어미 ) : 용언이 활용할 때,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며 여러 형태로 변하는 부분  
 예) 먹다, 먹으니, 먹어라, 먹자, 먹었다.-> 먹-(어간) / -으니, -어라, -자, -었-, -다(어미)

### 음운의 변동(變動)

- 개념: 어떤 형태소의 음운이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변하는 현상.  
-> 음운이 놓이는 위치나 인접하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변함.
- 음운 변동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 ①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거나 ②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남.
- 음운 변동의 종류

교체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음운 개수에 변화 없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되기, 두 음법칙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음운의 개수가 줄어듦)	자음축약(거센소리되기), 모음축약
탈락	원래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음운의 개수가 줄어듦)	자음군 단순화(겹받침줄이기), 자음탈락(ㄹ탈락, ㅎ탈락 등), 모음탈락(ㅏ, ㅑ, ㅓ 탈락 등)
첨가	형태소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음운의 개수 증가)	ㄴ첨가(숨이불), 반모음 첨가 등
-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해야 하는 이유
  -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소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발음되는지 이해해야 함.
  -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파악하면 우리말을 정확하게 발음하고 바르게 표기할 수 있음.

### 〈교체〉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되는 자음은 ( ㄱ, ㄴ, ㄷ, ㄹ, ㅁ, ㅂ, ㅇ ) 7 개의 소리뿐이다. 이것 외의 자음이 음절 끝에 오면 7 개 중 하나로 발음하게 된다.  
이처럼 음절의 끝에서 일곱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일어나는 교체

받침 표기(끝소리)		대표음	예시
ㄱ, ㄴ, ㅋ	→	[ㄱ]	박[박], 안팎[안팍], 부엌[부억]
ㄴ		[ㄴ]	선[선]
ㄷ, ㅌ, ㅊ, ㅌ, ㄷ, ㅌ, ㅎ	→	[ㄷ]	곳[곳], 있다[있따], 낮[낮], 낮[낮], 곧[곧], 끝[곧], 히읃[히읃]
ㄹ		[ㄹ]	별[별]
ㅇ	→	[ㅇ]	감[감]
ㅁ, ㅂ		[ㅁ]	밥[밥], 무릎[무릅]
ㅇ	→	[ㅇ]	명[명]

②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

환경	예시
뒤에 오는 형태소가 없을 때(어말)	웃[웃], 잎[잎]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자음 앞)	웃과[웃꽈], 잎도[잎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설절) 형태소가 올 때	웃 안[웃안 → 오단]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됨. 예) 웃이[웃시], 웃을[웃을]  
\*연음이란? 두 형태소가 결합할 때, 앞 형태소의 종성이 뒤 형태소의 초성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현상. 연음은 음운이 변하지 않으므로 음운 변동이 아니다.



② 단어의 합성이나 파생의 경우 ‘ㄴ, ㄷ, ㅂ,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

아드님(\_\_\_\_+ - \_\_\_\_), 다달이(\_\_\_\_+ - \_\_\_\_), 마소(\_\_\_\_+ \_\_\_\_), 바느질(\_\_\_\_+ - \_\_\_\_)

### < ‘ㅎ’탈락 >

: ‘ㅎ’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좋은[\_\_\_\_], 끌어→ [\_\_\_\_]

### (3) 모음 탈락

① 어간의 끝모음 ‘ㅏ/ㅑ’ 뒤에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질 때 그 중 하나 탈락

가--아서 → [\_\_\_\_], 자--았다 → [\_\_\_\_], 서--어서 → [\_\_\_\_]

② ‘ㅡ’탈락 : 어간 끝 모음 ‘ㅡ’가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쓰--어 → [\_\_\_\_], 담그--아 → [\_\_\_\_]

### <축약>

(1) 자음 축약(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거센소리[ㅋ],[ㅌ],[ㅍ],[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

① 받침 ‘ㄱ(ㄱ), ㄷ, ㅂ(ㅂ), ㅈ(ㅈ)’ 이 뒤 음절의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

먹히다 → [\_\_\_\_], 말형 → [\_\_\_\_], 입학 → [\_\_\_\_], 꽃히다 → [\_\_\_\_]

② 받침 ‘ㅎ(ㄴ, ㄹ)’이 뒤에 오는 ‘ㄱ, ㄷ, ㅂ’과 같은 예사소리와 결합되는 경우

놓고 → [\_\_\_\_], 앓다 → [\_\_\_\_], 싫대 → [\_\_\_\_], 닳지 → [\_\_\_\_]

(2) 모음 축약: 모음 ‘ㅣ’나 ‘ㅗ/ㅓ’가 다른 모음과 만나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현상

물리--어 → (\_\_\_\_), 두--었다 → (\_\_\_\_), 되--어 → (\_\_\_\_), 뜨--이다 → (\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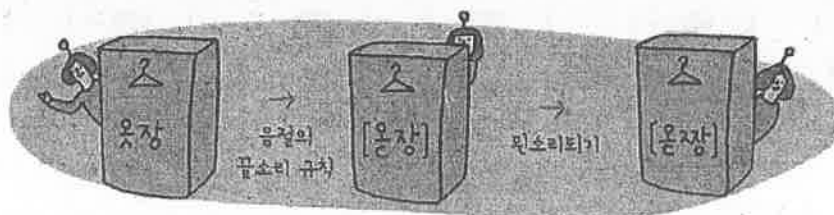
### <첨가>

(1) ‘ㄴ’첨가

: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맨 + 입 → [\_\_\_\_], 뒷 + 일 → [\_\_\_\_], 숨 + 이불 → [\_\_\_\_], 늦 + 여름 → [\_\_\_\_]

\*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물히다 → [\_\_\_\_] [\_\_\_\_] (음운 변동의 종류 : [\_\_\_\_])

값지다 → [\_\_\_\_] [\_\_\_\_] (음운 변동의 종류 : [\_\_\_\_])

늦여름 → [\_\_\_\_] [\_\_\_\_] [\_\_\_\_] (음운 변동의 종류 : [\_\_\_\_])

(6) 두음 법칙(頭音法則):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ㄴ’이나 ‘ㄹ’이 경우에 따라 본래의 소리를 잃거나 다르게 발음되는 현상.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것을 꺼려 다른 소리로 바꾸어 발음하는 현상.)

▷ ‘ㄴ’ 두음 법칙 : 단어 첫머리의 ‘ㄴ’은 ‘ㅇ’나 받모음 ‘ㅣ’ 앞에서 없어짐.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녀성 → 여성 •뇨도 → 요도 •닉명→ 익명

▷ ‘ㄹ’ 두음 법칙 : 만나는 모음에 따라 ‘ㄹ’이 ‘ㄴ’으로 바뀌거나 없어짐.

1.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로인 → 노인 •래일 → 내일 •뢰성→ 뇌성

2.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류수 → 유수 •력사 → 역사 •리발 → 이발

▷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교과서 166쪽 참고)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 의존 명사인 경우, 외래어의 경우 일어나지 않음.

## 〈탈락〉

### (1) 자음군 단순화 (→ 접받침의 발음)

: 음절의 끝에 접받침(자음군)이 오면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

#### 제10항

접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으로 발음한다.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하고,

‘ㄴㄷ’은 ‘넙죽하다’와 ‘넙둥글다’와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 제11항

접받침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ㄷ, ㅌ,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 제14항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엀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 접받침의 발음 조항에 근거하여 다음에 제시된 단어의 올바른 발음 표기를 적어보자.

제10항 : 뭉과 → [     ], 외곶 → [     ], 뉘다 → [     ], 없다 → [     ]

넙죽하다 → [     ], 뵈지 → [     ], 뵈다 → [     ]

제11항 : 닭 → [     ], 닭고 → [     ], 절다 → [     ], 뵈다 → [     ], 뵈게 → [     ]

제14항 : 값을 → [     ], 닭을 → [     ], 절어 → [     ]

### (2) 자음 탈락

#### <‘ㄹ’탈락>

① ‘ㄹ’이 ‘ㄴ, ㅂ,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어미 ‘-오, -ㄹ’ 등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

살-+는 → [     ], 살-+(ㅂ)시다 → [     ], 살-+세 → [     ],

살-+오 → [     ], 살-+((으)ㄹ)지 → [     ]

(4) 구개음화 : 실질 형태소의 끝자음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의 첫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경)구개음인 ‘ㅈ,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발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부근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자음 ‘ㄷ, ㅌ’이 후행하는 모음의 조음 위치로 닮아 가는 현상으로,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동화 현상임. (그림에서 확인)

▷ ‘ㄷ, ㅌ’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ㅣ’가 오더라도 그것이 실질 형태소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음.  
예) 논이랑 밭이랑(조사: 형식 형태소)[바치랑] 다 살피다. 저쪽 밭이랑(명사:실질 형태소)[반니랑]에 감자를 심다.



음운 환경(유형)	예시
ㄷ + ㅣ → [   ]	굳이 → [ 구디 ] → [   ] 해돋이 → [ 해도디 ] → [   ] 미달이 → [ 미다디 ] → [   ]
ㅌ + ㅣ → [   ]	같이 → [   ] → [   ] 살살이 → [ 살싸티 ] → [   ] 불이다 → [   ] → [   ]
ㄷ + 히 → [ 티 ] → [   ] ① 자음축약(ㄷ+ㅎ)    ② 구개음화	물히다 → [   ] → [   ] 달히다 → [   ] → [   ] 굳히다 → [   ] → [   ]

(5) 된소리되기(경음화) : 예사소리(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ㄲ, ㄸ, ㅃ, ㅆ, ㅉ)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 관련 ‘표준발음법’ 제 23항~27항 참고

①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ㅌ, ㄴ)’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된소리 ‘ㄲ, ㄸ, ㅃ, ㅆ, ㅉ’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국+밥 → [   ], 닭+장 → [   ], 낮+설다 → [   ], 있+-던 → [   ], 옆+집 → [   ]

② 어간 받침 ‘ㄴ(ㄴ), ㄹ(ㄴ)’ 뒤에 연결되는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신+-고 → [   ], 앉+-고 → [   ]    심+-지 → [   ], 젊+-지 → [   ]

③ 어간 받침 ‘ㄹ(ㄴ), ㄹ(ㄴ)’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넓+-게 → [   ], 할+-다 → [   ], 훔+-소 → [   ], 땀+-지 → [   ]

④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갈등(葛藤) → [   ], 일시(一時) → [   ], 설전(舌戰) → [   ]

⑤ 관형사형 ‘-(으)ㄹ’ 뒤에 오는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할 것을 → [   ], 갈 데가 → [   ], 할 바를 → [   ], 할 수가 → [   ], 할 적에 → [   ]

※ 국어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이어지면 항상 된소리로 바뀔까?

표준발음에서는 용언 어간에 피·사동 접사가 결합하거나(품에 안겨라[안겨라], 신발을 신기다[신기다]), 어미끼리 결합하거나(피로를 푼다[푼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거나(여름도[여름도]),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ㄴ, ㄹ’ 뒤에 ‘ㄱ, ㄷ, ㅂ, ㅅ, ㅈ’이 있는 경우(대문을 잠가[잠가])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2) 비음화 : 비음이 아닌 자음(ㄱ, ㄷ, ㅂ/ㄹ)이 비음의 영향으로 비음 'ㄴ, ㄹ, ㅇ'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①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ㅅ, ㅆ, ㅈ, ㅊ, ㅌ, ㅎ), ㅂ(ㅍ, ㅅ, ㅆ, ㅈ, ㅊ, ㅌ, ㅎ)'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ㄱ, ㄷ, ㅂ' : 파열음)

음운 조건(환경)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으로 발음	예시
비음이 아닌 자음(받침)	비음(초성)		
ㄱ(ㄲ, ㅋ, ㆁ, ㄷ)	ㄴ ㄹ	[ㅇ]	먹는다 → [멍는다] 국물 → [강물]
ㄷ(ㄱ, ㅅ, ㅆ, ㅈ, ㅊ, ㅌ, ㅎ)		[ㄴ]	달는다 → [덴는다] 만며느리 → [만여느리]
ㅂ(ㅍ, ㅅ, ㅆ, ㅈ, ㅊ, ㅌ, ㅎ)		[ㄹ]	잡는다 → [쟈는다] 밥물 → [방물]

② 받침 'ㄹ, ㅇ' 뒤에서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ㄹ'의 비음화)

음운 조건(환경)		비음으로 발음	예시
비음(받침)	유음(초성)		
ㄹ	ㄹ	[ㄴ]	침략 → [침낙] 함량 → [함낭] 담력 → [담녁]
ㅇ			공로 → [공노] 중력 → [중녁] 정립 → [정념]

③ 받침 'ㄱ, ㄷ, ㅂ' 뒤에서 유음 'ㄹ'이 먼저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고, 바뀐 비음 'ㄴ'을 닮아서 앞의 'ㄱ, ㄷ, ㅂ'이 비음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ㄹ'의 비음화)

백로 → [백노] → [뱅노], 독립 → [독립] → [통립], 막론 → [막논] → [망논]
몇 리 → [멀리] → [멀니] → [몹시], 갓는다 → [갓는다] → [갓는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후 비음화가 일어남)
협력 → [협력] → [협력], 설리 → [설니] → [성니]

(3) 유음화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유형	음운 환경 및 특징	예시
순행적 유음화 (앞 음운이 뒤 음운에 영향을 주어 일어남.)	▷ 'ㄹ'의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에 적용됨.	물놀이 → [     ] 달님 → [     ] 실내(室內) → [     ]
역행적 유음화 (뒤 음운이 앞 음운에 영향을 주어 일어남.)	▷ 'ㄹ'의 앞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 한자어에만 적용됨.	권력 → [     ], 산림 → [     ] 난로 → [     ], 논리 → [     ]

※ 역행적 유음화와 'ㄹ'의 비음화: 한자어의 분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

'난로, 권력'과 같이 한자어들이 결합해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는 대체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되고, '결단력, 의견란'과 같은 단어들은 '결단+력', '의견+란'처럼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어 'ㄹ'의 비음화가 적용되는 비율이 높다.

예) 난로[날:로], 권력[권력] → 역행적 유음화, 결단력[결단력], 공권력[공권력] → 'ㄹ'의 비음화

※ 동화(同化):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닮아가는 현상을 말함. 비음화와 유음화를 합쳐 자음 동화라 한다.